

## 고전 대하소설 속 바둑문화의 특징과 의미\*

서정민\*\*

1. 서론
2. 대국(對局)의 상황과 인물 구성
3. 겨루기와 내기
4. 대국(對局)의 소요 시간과 기구(棋具)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대하소설 속 바둑 향유의 양상을 주목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하소설 속에 형상화된 바둑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한 상층의 일상적 여가 활동의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바둑이 여성의 소임이 아니라는 경계의 시선이 전제되면서도 그 실상에 있어서는 여성이 보다 주도적이고, 또 부부간 남녀 대결에서 우위에 있다는 특징이 포착된다. 반면 여성간의 대결에서는 그 위치와 서사적 비중에 따라 승패가 결정됨으로써 대하소설이 작품 전반에서 형상화하는 위계질서를 충실히 반영하는 면모도 보인다. 이런 점은 대하소설이 조선후기 상층 여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향유 환경과 조응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하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바둑 향유의 여러 면모는 조선후기 바둑문화에 대한 당대 시선과의 대화적 상황 속에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대국 시간이나 승패의 결과에 대한 세세한 관심 등은 당시 널리 유행했던 순장바둑의 면모가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 본 연구는 홍익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 교양외국어학부 조교수.

내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모아졌던 사대부들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작품 안에서는 바둑과 내기 관습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층여성에게 대해 지배 이념의 교화를 담당하는 한편, 당대 다양한 문화적 교양을 제공했던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핵심어: 조선후기, 대하소설, 바둑, 여성, 순장바둑

## 1. 서론

오늘날 바둑은 대중적인 취미 영역이면서 동시에 프로 스포츠이자 대학 제도권 학문으로까지, 그 독특한 문화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바둑이 전통적으로 금기서화(琴棋書畫)로 통칭되면서 귀족이나 사대부 문인들의 고상한 예능활동으로 널리 향유되었던 유구한 문화적 토양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바둑의 기원은 흔히들 요임금이 만들었고 아들 단주가 잘 두었다는 중국 전국시대 <세본(世本)>이나 <박물지(博物志)>의 기록에서 찾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발상지가 한국이라는 주장까지 있어 그 편폭이 크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구려 기승(棋僧) 도림(道琳)이 바둑을 좋아하는 백제 개로왕을 찾아가 바둑으로 신망을 얻은 후 백제의 국력을 소진케 하고 마침내 장수왕이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4~5세기 이미 고구려와 백제 상층에서는 바둑이 성행했음을 이야기한다. 이후 신라와 고려시대 뛰어난 국수들에 대한 짧은 기록들이 면면히 이어지는 한편, 바둑을 제재로 한 시나 짧은 기설(基說)들이 전하고 있어<sup>2)</sup> 한반도에서 지속된 상층 문화의 하나로서 바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바둑과 관련한 그 문화적 제양상을

1) 진태하, 「문자학으로 본 바둑의 연원」, 『바둑학 연구』 3권1호, 한국바둑학회, 2006.

2) 김윤조, 「조선후기 바둑의 유행과 그 문학적 형상」, 『한국한문학회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고구할 만한 자료나 문헌 기록은 의외로 드문 편이다. ‘가장 중요한 碁士를 소재로 잡아 傳의 양식으로 남은 작품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웠다’<sup>3)</sup>는 연구자의 토로에서 바둑과 관련된 문학텍스트가 흔치 않은 실정을 살필 수 있거니와, 더불어 실생활 속에서 바둑의 향유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만한 자료도 극히 드문 실정으로 보인다. 최근 바둑학과의 개설로 바둑 관련 여러 논의들이 학술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사적 관점이나 생활사적 관점에서의 접근 성과는 여전히 희소하다. 이런 가운데 문학적 관점에서 바둑설화, 바둑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들이 제기된 바 있고,<sup>4)</sup>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해서는 놀이문화의 일부분으로 바둑을 다루면서 그 서사적 기능을 논의한 것 등이 최근 제출되었다.<sup>5)</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조선후기 대하소설 속에 형상화된 바둑 관련 장면들을 통해 바둑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향유되었는지, 그런 가운데 대하소설 속 바둑문화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바둑을 둘러싼 문화적 관점에서의 기록이 드문 현실 상황에서 간접적이거나 조선후기 바둑문화의 일단을 재구할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작중현실이 실제 현실로 그대로 치환될 수는 없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소설이 가지는 현실 재현의 속성을, 더하여 특히 조선후기 대하소설이 소설을 거짓이라 여기는 당대 일반적인 소설 인식 속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을 현실과의 높은 밀착 관계를 여기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본격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조씨삼대록>, <명행정의록>, <유이양문록> 등 여섯 작품이다.<sup>6)</sup>

3) 김운조, 「조선후기 바둑의 유행과 그 문학적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382면.

4) 강나연, 「한국 바둑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12 ; 강나연, 「현대 바둑소설의 특징 및 주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7.

5) 고전소설 속 놀이에 관해서는 이민희, 「고소설 삼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 - 옥루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또한 놀이문화 속 바둑과 그 서사적 기능에 관해서는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2011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 정선희 외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 ; 한길연 외 역주, 『유씨삼대록』 1

## 2. 대국(對局)의 상황과 인물 구성

대하소설에서 형상화된 대국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인공군 남성과 황제 간에 치러지는 군신(君臣)간의 대국과 가문 내에서 이뤄지는 대국이 그것이다. 군신간의 대국은 부마가 된 남성과 황제가 순수히 친교의 차원에서 진행하기도 하지만(<유씨삼대록> 권3) 대국을 계기로 사혼이 이뤄지는 경우가 보다 많다.<sup>7)</sup> 그리고 이때 사혼으로 주인공 가문에 영입된 여성들이 악인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가문 내에서 이뤄지는 대국의 경우는 가족이 모두 모인 단란한 분위기를 구체화하는 지점에서 벌어진다.

이부인이 진공이 의기양양해 함을 보고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둘째아이가 바둑에 승승장구하자 천하에 적수가 없을까 여기는구나. 바야흐로 너무 고요함을 좋아하는 자는 망한다고 한다. 내가 보니 현영의 재주는 느슨하고 장씨의 수는 매우 뛰어나나 살피기를 잘못하니 공주께서 한 수 도우시는 재주가 가장 이상하구나. 어찌 족히 바둑으로 의논하리오? 오늘 마침 자녀가 모여 가족이 빠진 사람이 없으니 이 바로 한 방에 부부, 형제가 모두 모인 것이라. 마음이 한가하고 또 즐거우니 한 번 유희로 소일하기를 원하게 되는구나. 옥주께서는 능히 한 판을 두시어 우리 아들의 예기를 꺾고 딸의 부끄러운 안면을 위로하시겠습니까?”

공주가 앉은 자리에서 물러나 절하고 사례하여 말하였다.

“감히 당해낼 수 없으나 시어머님께서 한 번 웃으심을 얻으시려 하시니 어찌 색동옷을 입고 아이 노릇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을 힘쓰지 않겠습니까?”

~4권, 소명출판사, 2010 ; 김지영 외 역주, 『임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사, 2010 ;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사, 2010 ; 『뉴니랑문록』(낙선재본 고전소설총서Ⅲ) 1~6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명행정의록> 1~70권(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7) <조씨삼대록> 권15, <임씨삼대록> 권24. 두 작품 속에서 군신간의 바둑 대결과 그를 계기로 진행되는 사혼 관련 서사의 양상은 정선희(2011), 앞의 논문, 189~191면을 참조할 수 있다. 이밖에 대국의 결과 그 재주를 고평하여 공주와의 사혼을 이루는 사례는 <취미삼선록>에서도 볼 수 있다.

부인이 흔쾌히 웃고 진공을 명하여 공주 앞에 판을 내오라 하였다. (<유씨삼대록> 권4, 89~90면)

<유씨삼대록>에서 이부인이 며느리 진양공주와 부마 진공의 대국을 주선하는 장면이다. 이에 앞서 진공은 누이 유현영과 대국하기를 청하고 이에 유현영과 진공의 차비 장씨, 이어 유현영과 진공의 대국이 한바탕 치러진 후, 누이를 이기고 의기양양해 하는 진공을 보고 진양공주와의 대국을 어머니가 주선한 것이다.

이처럼 가문 내에서의 대국은 주로 집안의 어른 가운데 여성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대국을 주선하고, 어른에 대한 봉양의 차원에서 자손들이 호응하면서 벌어진다. 이때 할머니나 어머니를 모신 처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 빈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며느리 항렬의 여성이 시어머니 항렬의 여성을 모시고 시누이 등과 대국을 벌이는 장면은 검토대상 작품 대부분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확인된다.<sup>8)</sup> 이들이 주로 단란한 분위기에서 화목과 우애를 드러내는 상황이라면, 이와는 달리 아들딸이 없는 부인이 시녀들과 바둑을 두며 마음을 달래는 상황<sup>9)</sup>도 있어 여성들의 바둑문화가 상층 문화권에 속하는 인물 안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

그런가 하면 열 살 전부터 여공(女工)을 하는 여가에 바둑과 투호를 섭렵하였다는 <유씨삼대록>(권4) 유현영의 발언이나 관태부인이 일곱 살 임소혜와 그보다 서너 살 어린 연교 등을 모아두고 바둑을 두게 하는 <임씨삼

8) <소현성록> 권4, 5. <유씨삼대록> 권2, 4, 9. <조씨삼대록> 권3, 19. <임씨삼대록> 권35. <유이양문록> 권 2. <명행정의록>의 경우는 예외적인데, 이는 가모의 자리가 비어있는 작중 설정 탓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신 <명행정의록>에서는 외조부를 모시고 그 자손들이 모여 대국을 벌이는 장면이 권49에 설정되어 있다.

9) 광씨의 5촌 숙모 광부인은 시랑(侍郎) 이현의 부인이고 아들과 딸 등 자식이 없었다. 이시랑이 세상을 뜨고 나서 홀로 사는 집이 적막하여 넓은 청사(廳舍)를 비복들로 메우고 새벽과 저녁에 달이 뜨거나 꽃 피고 새 우는 봄이 되면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광씨와 연향이 이부로 온 것이다. 이부인이 시녀들과 바둑을 두면서 마음을 붙였는데, 밤이 깊어 삼경(三更)이 되도록 자지 않고 있었다. (<조씨삼대록> 권22, 86~87면) 이러한 지점은 작중 인물의 신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인물이 속한 문화권의 특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륙>(권35)의 장면을 통해 볼 때 여성의 바둑 두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생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바둑 두기가 일상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바둑 활동이 여성의 소임 혹은 여성이 할 만한 일로서 온전히 긍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종일토록 시사를 화답하고 바둑으로 소일하는 것이 풍류 있는 거동이라 한 <소현성록>의 긍정적 서술에도 불구하고,<sup>10)</sup> 대하소설 특히 <유씨삼대록>과 <조씨삼대록>에는 여성의 바둑 활동과 관련하여 삼가는 태도들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부마 유세형은 평일 궁중에서 아내 진양공주에게 여러 번 대국하기를 청하지만 공주는 재주를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둑 두는 행동이 무례하고 방자하다고 여겨 즐기지 않고 응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남편과 대국을 벌일 때도 노래자를 거론하며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행의 일환임을 밝힌다. 이어 패배를 만회하고자 다시 겨루기를 청하는 남편에게 공주는 어른 앞에서 두 번 무례를 범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거절한다.

그런가 하면 진양공주의 후신처럼 형상화되는 문창공주는 남편과 대국하기를 권유받지만 선뜻 응하지 않다가 어머니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마지못해 대국에 참여한다. 이후 문창공주는 술 취한 남편이 그 부실 양성공주와 대국하기를 명하자 “도박이나 잡기 같은 신묘한 일은 본래 배우지 못하였고 시부모님께서 위에 계시니 어찌 감히 남편의 취한 틈을 타 방자히 실없는 장난을 하여 행실을 상하게 하겠는가?”(권17, 57면)라고 반문하며 남편의 명을 거부한다. 부부 불화의 상황이므로 남편의 명에 순순히 따를 마음이 없기도 했겠지만 그녀가 남편의 명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당당하다. 여성의 바둑 두기는 실없는 장난에 행실을 상하게 하는 짓인 것이다.

<조씨삼대록>에는 남편 조기현과의 대국을 못내 부끄러워하는 소씨에

10) “네 부인이 몸이 한가하고 여력이 있었으나 의복에 간여하지 않으며, 손님 대접할 수를 헤아려 양부인 앞에서 석과 등과 더불어 술과 안주를 도울 따름이었다. 소씨와 윤씨 부인도 자기 남편의 손님맞이를 시녀에게 맡기고 아는 것이 없었으며 단지 장복(章服)과 관복(官服)을 시녀가 잘못 준비할까 하여 스스로 짓는 일 외에는 종일토록 시사(詩詞)를 화답하여 부르고 바둑으로 소일하여 시인(詩人)의 모습과 풍류 있는 거동이 있었다.”(<소현성록> 권4, 125면)

계 시어머니 정숙렬이 “남편과 잡기를 하는 것은 규중(閨中)의 정도(正道)가 아니지만 부부의 처소에서 스스로 시가(詩歌)를 서로 지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명령에 따르는 상황이니”(권3, 19면)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어 조유현과 정씨가 대국을 벌이려는 중에 찾아온 시동생 초공에게 정숙렬은 규중의 부덕(婦德)을 어긴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일이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원론을 재삼 확인시키고 있다.<sup>11)</sup>

### 3. 겨루기와 내기

대하소설 속 대국 장면에는 항상 그 승패를 적시하는 서술이 함께한다. 사혼을 위한 대국처럼 처음부터 그 결과에 따른 의도한 바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일가의 단란함을 형상화하기 위한 대국에서조차 그 승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결의 결과에 서술의 한 초점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부부간의 대국에서 부인이 첫째부인인 경우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크게 이기는 것으로 강조된다. 조정 내외를 막론하고 대적할 자 없는 것으로 그 바둑 실력이 고평되는 진공에게 진양공주는 세 판을 크게 이기고(<유씨삼대록> 권4), 태어나 바둑을 아버지께 배운 적도, 형제들과 시험해 본 적도 없었던 문창군주 역시 남편과의 대국에서 세 판을 내리 이긴다(<유씨삼대록> 권15). 장인 백양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인 위연청 부부와 아들 내외의 대국에서도 모두 첫째부인들이 승리한다(<명행정의록> 권49). 조기현과 소씨의 두 판 대국 역시 마찬가지로이다(<조씨삼대록> 권3). 이런 점은 전반적으로 대하소설의 사건들이 정실부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시

11) 대하소설에서 여성의 시 짓기나 그림 활동을 두고 그것이 여성의 소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원칙론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어른의 뜻을 따르는 효행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활동의 여성들을 구체화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 여성의 바둑을 두고서도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이나 그림 활동에 대해서는 서정민, 「조선 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용 -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한글 대하소설 속 여성 그림 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참조).

각이나 관점에서 다뤄지는 것과 상응하는 양상이라 생각된다.

한편, 여성끼리의 대국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현성록>(권10, 119~120면)에서 소운명의 둘째부인 이씨와 셋째부인 정씨의 대국인데, 여기서 이씨는 연달아 다섯 판을 승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5판 연승은 관습적이라 여겨질 만큼 빈번했던 3판 연승에 비할 때 그 승패의 결과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지점이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정씨가 앞으로 이씨를 적극 모해하는 악인이라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선인군 인물끼리의 겨루기는 인물간 위계의 순서, 서사적 비중의 순서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바둑을 소재로 한 설화 등에서 대결 결과의 반전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할 때 대하소설의 대결 결과에 예외는 없다. 지배이념에 대한 교조적 언설로 표면을 분석하고 있는 대하소설이 그 어떤 범규나 규정보다 세밀하게 등장인물간의 수직적 위계를 형상화하는 한 방편으로 바둑을 소재로 한 대결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sup>12)</sup>

그럼에도 바둑 모티프를 통해 대하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 성취라면 특히 선인군 인물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딱딱한 이념적 행위가 아닌, 보다 진솔하고 그래서 보다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 점일 것이다.

두 사람이 대면하여 승부를 다투니 남자의 풍채와 여자의 용모가 깨끗하고 흰칠하여 상서로운 빛이 온 자리에 비쳤다. 여러 사람들이 새로이 탄복하고 사랑하여 일시에 자리를 옮겨 소생을 도와 군주를 지게 하려 했다. 진공은 그 엄중함으로도 오히려 참지 못해 자리에 잠깐 나와 딸과 사위의 재주를 보았

12) 이러한 전반적인 특징 속에서 고려해야 할 사례는 <조씨삼대록>(권19)에서 드러나는 강씨를 들 수 있다. 강씨는 조유현의 원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혼인 후 갖은 악행을 일삼던 여인이다. 바둑을 두는 시점은 이런 강씨가 온전히 개과천선한 후인데도 남편 조유현이 여전히 강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부인의 주선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강씨는 조유현의 다른 부인들을 모두 물리친다. 이같은 설정은 태부인이 조유현에게 강씨의 명랑함과 총명함을 강조하면서 강씨와의 화목을 적극 권유하여 조유현이 강씨를 온전히 포용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는 강씨가 비록 개과천선했더라도 온전한 선인군 인물로 자리매김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 사례이다. 또한 바둑 모티프가 서사 전개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다. (...) 사람들은 비록 바둑 같은 유희라 해도 군주가 오히려 소생에게 사양할 것이라 여겨 첫 판은 두 사람의 재주를 보고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군주가 (...) 세 판을 연이어 이겼다. (...) 진공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여자가 되어 가장을 이기고도 한 수도 사양하지 않는 것은 여자의 온순한 부덕이 아니다. 소량이 부끄러워할까 싶구나.” (<유씨삼대록> 권15, 69~70면)

문창군주가 남편과 대국하게 되자 그 아버지 진공은 평소의 진중함을 참지 못하고 나와 대국을 구경했다. 그리고는 딸이 평소 도도한 영웅호걸의 기상을 가진 남편에게 세 판을 연이어 이기자 손을 잡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한 수도 봐주지 않고 남편을 이긴 것이 여자의 온순한 부덕이 아니라 한다.

유약해 보이기만 하는 딸과 강성한 사위의 대결이라니 아버지는 예의 그 진중함을 버리고 나와 아랫사람들과 함께 구경을 했을 것이다. 마침내 딸이 이겨내는 것을 보고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진공의 모습에서 딸을 향한 애뜻하고도 진솔한 아버지의 심사가 읽힌다. 그러면서 건네는 말은 그 모든 행동, 표정과는 상반되는 것인데, 이 순간 그 말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감지된다. 여성에 대한 교화 주체로서의 남성이기 이전에 여린 한 딸자식의 아버지로서의 애정과 염려가 바둑 모티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한편, 대하소설 속 바둑을 통한 겨루기의 과정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태도도 주목된다. 대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두기를 주장하거나 수를 물리는 행위는 많지 않지만 모두 남성들의 것이다.<sup>13)</sup> 여성의 대국 태도가 보다 점잖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모범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행동의 경우 남성에게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내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하소설 속 대국에서 내기가 결부되는 경우는 남성들만의 사례에 그친다. 황제가 사혼을 위해 의도한 대국의 상황에서 미인 천거를 내기로 거는

13) <조씨삼대록>(권3)의 조유현, <창선감의록>(4회)의 윤어옥, <유씨삼대록>(권4)의 진공 등.

경우와, <유씨삼대록>에서 진공이 누이 현영에게 진공에 머물 것을 권하면서 이를 내기조건으로 거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sup>14)</sup> 조선후기 바둑내기가 성행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대하소설 작가가 의식적으로 바둑과 내기 사이에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포함한 가문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으로 바둑을 설정했을 때 선인군 인물들에게 미칠 세간의 혐의를 견제한 설정인 것이다.

또한 진공이 내건 내기의 조건-누이에게 진공에 머물 것을 권하는 것-도 일상 속에서의 부탁이나 제안의 수준이다. 이는 <옥루몽>에서 진왕부의 여성들과 연왕부 여성들이 패를 나누어 쌍륙놀이를 하면서 지는 쪽이 별주를 마시는 내기를 걸었던 것과 비교할 때 건전하기 이를 데 없는 대하소설적 양상이라 할 것이다.

바둑이 내기와 결부된 것은 조선 후기에 바둑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이유였다. <혁기론(奕棋論)>을 통해 바둑 두는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덕무는 바둑 자체란 우아한 기예 중 하나라고 인정하면서 내기나 그로 인한 다툼에 초점을 두어 비난했고,<sup>15)</sup> 무더운 여름을 지낼 여덟 가지 방편 가운데 하나로 깨끗한 대자리에서 바둑 두는 것을 꼽았던 정약용도 투전이나 내기바둑에는 강한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고 한다. 조선후기 바둑은 선비들의 고매한 취미활동으로서 그 자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기와 결부되면서 비판론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하소설은 이와 같은 현실의 상황을 적절히 인식하고 견제하면서 온가족이, 특히 여성이 주도하는 여가 활동의 하나로 바둑문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14) 이런 점은 바둑 이외의 잡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들의 투호놀이가 대하소설에서 적지 않게 설정되어 있지만 내기와 결부된 것은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이 서모 석파에게 소영을 염두에 두고 미인을 얻어달라며 내기 투호를 하는 경우 정도이다. 한편 <구운기(九雲記)>(제7회)에는 정경패가 자신을 속한 양소유를 놀려줄 계획의 포석을 마련하는 가운데 그 일가 오빠를 끌어들이려고 오빠에게 내기 바둑을 먼저 제안하고 있다. 이는 대하소설과의 거리 혹은 향유 의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라 여겨진다(윤영옥 역, <구운기>, 민족문화연구회 자료총서24, 영남대 출판부, 2001).

15) 이덕무, <혁기론>(민족문화추진회 편, 『청장관전서』 I, 1997, 293~296면).

#### 4. 대국(對局)의 소요 시간과 기구(棋具)

대하소설 속 바둑 활동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지점은 대국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소설 속 대국은 한 장면에서 적게는 두세 판, 많게는 열 판을 넘어 최소 열다섯 판 이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이양문록>(권2)에서는 시누이 유필염과 올케가 최소 4판을, <유씨삼대록>(권4)에서 진공과 부인 진양공주, 장씨, 그리고 진공의 누이 유현영 등이 벌이는 대국은 현영과 장씨가 4판, 이어 진공과 현영이 1판, 진공과 진양공주가 3판을 벌여 도합 8판을 벌인다. 같은 작품(권15)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대국은 진후와 설부인이 끝내 승부를 보지 못하며 진행된 10판, 소생과 문창군주 3판, 연후와 왕씨 1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연후와 양부인이 판마다 비겼다고 했으니 이때 치러진 대국을 최소 2, 3판으로 보면 이 장면에서 적어도 15판 이상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각 대국이 벌어진 동안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또 여러 대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밤새고 식음을 폐하는 정도로 몰두했던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점, 일가가 여가 시간을 함께 하는 활동으로서 대국하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리에 함께 한 참여자 모두가 개개의 대국을 감상하는 분위기인 점을 감안하면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대국의 횟수는 각 대국이 비교적 짧게 진행될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대하소설 속 바둑이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의 바둑이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 바둑의 본래의 방식은 중국식과 같이 백흑 서로 두 점씩 네 귀의 세자(勢子)에 선치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으로부터 120~130년 전(18세기 후반) 나라 안에 내기바둑이 크게 유행했을 때 중국식과 같은 백흑 두 점씩 서로 선치하는 것만으로는 반면이 넓어 사고(思考)를 낭비하는 일이 심하여 승부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폐단을 꺼려 지금의 방식과 같이 8개씩 서로 선치함으로써 반면을 좁게 줄이고 단시간 내에 종국하여 승부를 결판 짓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sup>16)</sup>

인용문은 갑오개혁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했던 김옥균의 발언으로, 일본인 다케다(武田信愛)의 수기(手記)로 남아 있던 것을 바둑기자 사미세이(社未生)가 정리하여 <조선(朝鮮)의 변기(變碁)>라는 제목으로 잡지에 실은 것 가운데 한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8세기 조선에서 내기바둑이 크게 성행하면서 승부가 빨리 결정되도록 초반 포석의 단계를 없앤 순장바둑<sup>17)</sup>이 널리 두어졌다는 것이다.

순장바둑은 조선 유성룡이 창시자라는 설이 구전되기도 하지만, 종종 때 문인 최여신(崔汝愼)의 바둑시에 ‘배자청주착오간(排子靑朱錯誤看: 순장점이 푸른색인지 붉은색인지 잘못 보았네)’라는 구절이 있어 그 이전에도 순장바둑이 두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나라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으면서 백제 의자왕이 보낸 것이라는 설이 분분한 목화자단기국(木畵紫檀棊局)에는 순장바둑에서만 쓰이는 17개의 화점이 새겨져 있어 순장바둑이 두어졌던 시기는 훨씬 오래된 것이라 추측된다.<sup>18)</sup> 한편, 김창업의 <노가재연행록> 중에도 우리나라의 바둑 방식으로 순장바둑을 언급한 것이 있어 주목된다.<sup>19)</sup>

20세기 초 일본식 바둑을 받아들인 이래 널리 일반화된 현대식 바둑에서 처음 반상의 크고 좋은 곳을 점령하여 영토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좁혀가는 방법을 쓰는 것과 달리, 조선 재래의 바둑 방식으로서 순장바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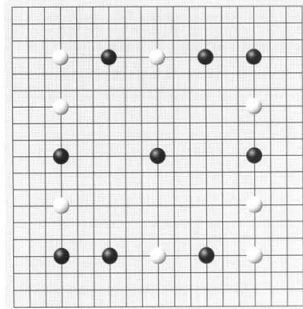
16) 김옥균 설, 사미세이(社未生) 옮김, <조선(朝鮮)의 변기(變碁)>, 『기도(基道)』, 대정 7년(1918) 9월호, 일본: 방원사(이승우, 『바둑의 역사와 문화』, 현현각 양지, 2010, 168면 재인용). 김옥균은 갑오개혁 실패 후 일본 망명 시기 동안 일본의 최고수들과 교류할 정도로 바둑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17) 순장바둑의 순장은 ‘巡將’ 또는 ‘巡丈’으로 표기하나 17점 배석을 장수로 보고 순회, 순찰하 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巡將’ 표기가 더 설득력 있다고 한다. 일명 ‘조선바둑’, 또는 꽃무늬 위에 놓고 두는 바둑이라 하여 ‘花點바둑’이라고도 한다.(백우평, 「순장바둑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바둑학 연구』 3권 1호, 한국바둑학회, 2006, 31면 참조)

18) 백우평, 「순장바둑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바둑학 연구』 3권 1호, 한국바둑학회, 2006, 32면.

19) 임진년 2월 21일. 한인 유계적의 집에 유숙했다. 주인은 소금장사였는데 글을 몰랐다. 방안에 바둑판이 있기에 주인을 불러 두어보니 두는 법이 우리나라 방식과 똑같았으나 다만 초두에 배자(排子: 벌려놓은 돌, 즉 순장점)가 없는 것이 달랐다(...).

미리 17점이나 배치하여 초반의 포석이 끝난 상태에서 대국이 진행된다. 그래서 순장바둑은 바로 중반전으로 돌입하는 전투적 색채가 강하다. 또한 네 귀를 화점에 두고 시작하므로 정석의 종류가 적다는 점, 더불어 격식이 없고 자유분방하게 두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sup>20)</sup>



<그림 : 순장바둑의 포석도><sup>21)</sup>

순장바둑이 대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 더하여 대결의 색채가 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대하소설 속 바둑 장면이 대부분 겨루기로서 그 승패 결과에 서술의 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점과 상응한다. 또한 정석의 종류가 적고 비교적 격식 없이 자유롭게 둘 수 있다는 특징은 비록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바둑 생활을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여공(女工) 이후의 여가에나 가능한 활동이었고, <유씨삼대록>의 문창군주처럼 본격적인 학습의 과정 없이도 바둑 두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서 여성들의 바둑 방식으로 더욱 적절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이씨세대록>(권2)에는 이흥문이 불고이취하는 과정에서 장인될 양세정과 바둑을 둔다는 짧은 서술이 있다. 이 중에 ‘홍백 바둑과 판’이 사용되는데, 바둑알의 색깔로 홍백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된다. 오늘날의 바둑알은 흑백이 일반적이지만, 고려 공민왕의 그림이라 전해지는 위기도(圍碁

20) 백우평, 「순장바둑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바둑학 연구』 3권 1호, 한국바둑학회, 2006, 33~35면.

21) 진태하, 「한국(韓國)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부흥(繼承復興)과 한자(漢字) : 바둑과 한자(漢字)」, 『한글한자문화』 136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10, 11면 재인용.

圖, 비단 채색, 일본 시센시 소장)에는 붉은 돌과 검은 돌이 그려져 있다. 이는 당나라 유종원의 <서기(序碁)><sup>22)</sup>에 근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목화자단기국(木畫紫檀碁局)을 의자왕이 보낸 것이라는 추측의 근거로 드는 일본 정창원의 홍아(紅牙), 감아(紺牙) 바둑돌 역시 색채가 다채롭지만, 홍백의 바둑돌과 관련될 만한 자료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씨삼대록>에는 바둑판으로 금판이 누차 등장한다. 금판 바둑판은 전남 무안군 총지사 절터에 금으로 만든 바둑판이 매장되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실제 제작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이런 점들은 대하소설에 나타난 기구들이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록이나 유물 이상으로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 5. 맺음말

이 글은 문화사적 관점에서 대하소설 속 바둑의 향유 양상을 주목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하소설 속에 형상화된 바둑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한 상층의 일상적 여가 활동의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바둑이 여성의 소임이 아니라는 경계의 시선이 전제되면서도 그 실상에 있어서는 여성이 보다 주도적이고, 또 부부간 남녀 대결에서 우위에 있다는 특징이 포착된다. 반면 여성간의 대결에서는 그 위치와 서사적 비중에 따라 승패가 결정됨으로써 대하소설이 작품 전반에서 형상화하는 위계질서를 충실히 반영하는 면모도 보인다. 이런 점은 대하소설이 조선후기 상층 여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향유 환경과 조응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하소설은 바둑 모티프를 통해 보다 온전한 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남편과의 대결에서 여지없이 승

22) 유종원의 동생들이 학문에 집착하자 방직은이라는 사람이 바둑판과 돌을 만들어 휴식할 것을 권했는데, 그 방식이 검은 돌은 천하고 붉은 돌은 귀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유종원이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 귀천과 천시가 나뉘는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검은 돌에 비유했다.

23)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무안군의 문화유적』, 1986.

리하는 여성을 설정하여 여성 독자들의 호기에 부합하면서도, 그 속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제시한다. 여성에 대한 교화 주체로서의 남성이기 이전에 여린 한 딸자식의 아버지로서의 애정과 염려가 바둑 모티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한편, 대하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바둑 향유의 여러 면모는 조선후기 바둑문화에 대한 당대 시선과의 대화적 상황 속에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대국 시간이나 승패의 결과에 대한 세세한 관심 등은 당시 널리 유행했던 순장바둑의 면모가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내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모아졌던 사대부들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작품 안에서는 바둑과 내기 관습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하소설 속 바둑 향유는 여성이 주가 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배경에는 비록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여성의 바둑 향유 관련 기록들이 간헐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영수합(1753~1823) 등 몇몇 여성들의 바둑 관련 시가 전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sup>24)</sup> 더불어 19세기 중반 기각(綺閣)이라는 여성의 한글 언해 한시집 『기각한필(綺閣閑筆)』에는 ‘괴국’이라는 제목의 바둑시가 전할 뿐만 아니라 시 짓고 거문고 타며 바둑 두는 것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삼았음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보인다.<sup>25)</sup> 이러한 정황은 종일토록 시사를 화답하고 바둑으로 소일하는 것이 풍류 있는 거동이라 한 <소현성록>의 작중 서술과 동궐에 있다. 대하소설 속에 그려진 바둑 문화가 당대 상층 여성들의 실제 -원론적 규범이 규제하는 것 이상의- 생활문화와 일정한 관련 속에서 형상화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sup>26)</sup>

24) 서영수합의 바둑시 ‘관기국(觀碁局)’은 그윽한 거처를 찾아온 손님과 더불어 세속의 이야기 대신 둔 바둑에서 고금의 흥망을 체감한다는 시의를 담고 있다.(이혜순, 정하영 편역, 『한국 고전여성문학의 세계(한시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85~86면)

25) ○괴국<바둑> 문평정경낙조성<문 있는 판의 정〃훈 거시 낙조의 소리니> 십구노동안진성<열아홉 길 가운데 기러기 진을 일워더라> 직산호오습잔괴<손이 훗허지뭇 아히를 불너 쇠잔흔 바둑을 주어시니> 흑빅분운스효성<검고흰 거시 분운후여 새벽 별 갖더라> (『綺閣閑筆』 9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한편, 『기각한필』의 서지 사항과 전반적인 특성은 부유섭·강문중, 『『綺閣閑筆』研究』,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참조.

26) 대하소설이 여성에게 적용되던 규범적 문화 범주를 넘어 상층의 다양한 문화를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명행정의록>이나 <삼강명행록>, <위씨오세삼난현행록> 등 여러

기각(綺閣)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특히 『綺閣閒筆』에는 서영수합의 아들 홍현주(1793~1865)의 <동가십경(東嘉十景)>을 차운한 시가 있어 주목된다. 서영수합의 한시 작품 중에도 <동가십경(東嘉十景)>을 차운한 것이 있는데, 이런 관련은 기각과 서영수합이 상층 여성이라는 계층적 동일성 이상의 동질적 문화를 향유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같은 여성의 바둑 관련 문화가 과연 논의를 통해 살펴 본 바 대하소설 작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정도로 일상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다. 더불어 여기서 대하소설 작품 간에도 일정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작품에 대한 분석과 조선 후기 상층 여성의 문화 지형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줄고,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여성문학연구』 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등 참조).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정선희 외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  
 한길연 외 역주, 『유씨삼대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  
 김지영 외 역주, 『임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사, 2010.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사, 2010.  
 윤영옥 역, 『구운기』 (민족문화연구회 자료총서24), 영남대 출판부, 2001.  
 『뉴니냥문독』 (낙선재본 고전소설총서Ⅲ)1~6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명행정의를록』 1~70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무안군의 문화유적』, 1986.  
 민족문화추진회 편, 『청장관전서』 I, 1997.  
 이승우, 『바둑의 역사와 문화』, 현현각 양지, 2010, 1~339면.  
 이혜순, 정하영 편역,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한시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1~334면.  
 정수현·김진환, 『교양바둑입문』, 바둑아카데미, 2005, 1~295면.

## 2. 논문

- 강나연, 「한국 바둑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12, 1~166면.  
 강나연, 「현대 바둑소설의 특징 및 주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7, 1~92면.  
 강재철, 「전통놀이관의 지속과 변용」, 『비교민속학』 43, 한국비교민속학회, 2010, 227~264면.  
 김기정, 「요한 호이징어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인문연구』 63,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11, 323~352면.  
 김미라 외, 「바둑의 놀이적 속성」, 『바둑학 연구』 8권 2호, 한국바둑학회, 2011, 99~115면.  
 김용산 외, 「바둑 역사 자료를 활용한 바둑소설 창작 사례 연구」, 『바둑학

- 연구』 7권 2호, 한국바둑학회, 2010, 95~107면.
- 김윤조, 「조선후기 바둑의 유행과 그 문학적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381~407면.
- 박우석, 「바둑 용어 연구에서 존재론의 역할」, 『바둑학 연구』 3권 1호, 한국바둑학회, 2006, 1~13면.
- 배태일, 「바둑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특성」, 『바둑학 연구』 8권 2호, 한국바둑학회, 2011, 1~18면.
- 백우평, 「순장바둑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바둑학 연구』 3권 1호, 한국바둑학회, 2006, 31~38면.
- 부유섭·강문중, 「『綺閣閒筆』 연구」,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 2007, 435~464면.
-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42면.
- 서정민,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121~145면.
- 서정민, 「한글 대하소설 속 여성 그림 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312~334면.
- 안대회, 「國手 정운창 : 오묘한 棋理 깨우쳐 八道 호령한 진정한 프로기사」, 『신동아』 통권 538호, 2004년7월1일, 540~553면.
- 이민희, 「고소설 삼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옥루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239~267면.
- 이민희,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문화」,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261~300면.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83~121면.
-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2011, 181~209면.
- 진태하, 「문자학으로 본 바둑의 연원」, 『바둑학 연구』 3권 1호, 한국바둑학회, 2006, 12~18면.
- 진태하, 「한국(韓國)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부흥(繼承復興)과 한자(漢字) : 바둑과 한자(漢字)」, 『한글한자문화』 13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10, 10~16면.
- 채 완, 「바둑 용어의 은유」, 『한국어 의미학』 20, 2006, 231~255면.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367~298면.

## The study of cultural history about 'go' in chosun's roman fleuve

Seo, Jung Min

This study pay attention to 'go' in roman fleuve on cultural history. Generally 'go' in roman fleuve is a daily leisure in the upper classes. Though they recognized that 'go' is not what women may do, women took lead in 'go' and predominated over men. This corresponds that roman fleuve had the upper classes women as the target audience.

Aspects of playing go in roman fleuve reflected a variety of views in the late chosun. It seems that a short match time, interest in victory or defeat and so on reflected the 'sunjangbaduk's peculiarities. Concurrently 'go' in roman fleuve stay away from betting, it seems to be aware that 'Sadaebu' had critical eyes at play go for stakes. This corresponds that they edified and instructed cultures with roman fleuve.

Keywords : the late chosun, roman fleuve, 'go', women, 'sunjangbaduk'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